▶▶ 매일 INDEX

4면
'2050탄소중립' 공동체들이 앞장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음 7월 3일) 제283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중점사업 반영해달라"

송하진 도지사, 기재부 찾아
새만금 수질개선 · 신산업
문화관광 · 농생명 등 분야별
타깃 선정 예산 반영 요청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상용차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등 총 망라

송하진 도지사는 9일 막바지 예산심의가 한창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대 예산실장과의 면담 자리를 갖고, 새만금 수질개선, 신산업지도 동력사업, 문화관광, 농생명산업 등 도정 핵심 분야별로 타깃사업을 선정해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중요시점에 정부안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9일 송하진 도지사는 막바지 예산심의가 한창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대 예산실장과의 면담 자리를 갖고, 새만금 수질개선, 신산업지도 동력사업, 문화관광, 농생명산업 등 도정 핵심 분야별로 타깃사업을 선정해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중요시점에 정부예산안에 꼭 담겨야 할 핵심사업을 추려 이날 송하진 지사가 직접 최상대 예산실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먼저,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오염원의 근원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익산 왕궁 및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송 지사는 도민이 온 힘을 모아 그려낸 산업지도를 채울 동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동력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전북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상용차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에 대한 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이날 마지막 단계인 3단계(오픈형 실도로, C-ITS 연계 자율주행)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축된 실증 인프라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상용차 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이 가능해짐을 강조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선언, 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적인 추진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도 적극 설득했다.

풍력발전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블레이드 완성품 단계 인증을 '소재-부분품-완성품' 전주기 단계 인증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66억 8천만 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해양 무인이동체 기술 검증에 최적지인 새만금 내수면에 구축하는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며, 새만금 내해는 실제 바다와 유사한 환경의 정온수역을 이루고 있어 해양무인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전북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사업의 국비 165억원 전액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새만금 잼버리 용지에 새만금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수산식품 R&D센터 중심의 스마트 가공공장 기반 구축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의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문화관광 분야와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생명산업 분야의 타깃사업 반영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안동 도산서원 등 영남지역에 편중된 유교문화 향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호남지역 유교문화의 중추적인 공간 조성 및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전라유학진흥원 건립'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사업의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화 효과음원의 국산화 및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뱅크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비 반영을 함께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송 지사는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농생명 분야 관련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마무리 시점까지 도와 정치권 및 시·군과의 탄탄한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 구성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총괄운영 · 집행관리 등 4개반 구성
이달 중순 정부 세부시행계획 발표 대비 사전 준비 나서

전북도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특별팀)'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는 최훈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운영반, 집행관리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등 4개반으로 구성했다.

전담 TF는 오는 8월 중순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과 사용처 등 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전북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콜 센터 운영 등 국민지원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에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다만, 신청·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자체 콜 센터를 운영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담 TF구성, 콜 센터 운영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국민지원금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천연기념물' 내장산 290년 추정 단풍나무

단목으로는 국내 유일
급경사지 · 암석지 속
긴 세월 생육상태 양호
학술적 측면서 가치 커

가을철 단풍명소로 유명한 내장산 내 금선계곡 단풍나무가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9일 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내장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풍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단풍나무는 내장사와 용굴 진입로인 조선왕조실록길에서 약 30m 정도 이격된 산비탈 하부에서 자생하고 있다.

나무의 수령(나무의 나이)은 약 290년으로 추정되고, 수고(높이)는 16.87m, 근원직경(밑동 둘레)은 1.13m, 흉고직경(가슴높이 둘레)은 0.94m이다.

너비는 동서 방향 20.32m, 남북 방향은 18.10m로 내장산의 단풍나무 중 가장 규모가 큰 노거수(老巨樹)다.

36°의 급경사지와 암석지(51~57%)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랜 세월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외형적으로 웅장한 수형을 이루고 있어 자연경관과 학술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장산에서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산신령이 내장산에서 가장 많은 수종을 붉게 만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단풍나무는 가을철 내장산 단풍경관을 이루는 대표 수종이자 상징목이다. 현재까지 단풍나무 단목으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단풍나무는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유명한 정읍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인 내장산을 대표하는 상징목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단풍나무 관람환경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